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수 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관계

지도 김 희 순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수 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김수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희순 인

심사위원 이정열 인

심사위원 이선경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감사의 글

지금까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의 처음에서부터 완성까지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 김희순 교수님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고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논문 심사를 맡아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제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신 이정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고 가시는 어려움에도 예리하게 논문의 방향을 짚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선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위과정동안 부족한 저를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문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시던 석사 동기 유리, 안수정, 송진, 이슬, 김수연, 권유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2년의 학위과정과 논문을 쓰는 동안 많은 격려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언제나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해주던 나의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기도로 후원해주시던 제 마음의 고향인 신도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KONOS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택 과장님과 백은자 과장님, 정경옥 사무관님, 그리고 회사 내 많은 선생님들의 배려와 관심, 조언 덕분에 2년의 시간동안 학교를 다니고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쓰는 중에도 입사하게 되어

여러모로 배려를 해 주신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한설희 센터장님과 남궁옥경 팀장님, 그리고 팀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한 딸이지만 아낌없는 사랑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부모님. 부모님의 사랑과 매일의 기도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 있어서 보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윤정이 언니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김수정 올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차 례

차례 ····· i
표 차례 ····· iii
부록 차례 ····· iii
국문 요약 ····· iv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용어의 정의 ····· 3

Ⅱ. 문헌고찰 ····· 4
1. 또래간 성 의사소통 ····· 4
2. 성태도 ····· 7

Ⅲ. 연구방법 ····· 10
1. 연구설계 ····· 10
2.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 10
3. 연구도구 ····· 10
4. 자료수집 방법 ····· 12
5. 자료분석 ····· 13

Ⅳ. 연구 결과 ····· 14
1. 대상자의 특성 ····· 1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대상자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 성태도 ····· 16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또래간 성 의사소통, 성태도 ····· 17
4. 대상자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관계 ····· 20

Ⅴ. 논의 ····· 22

Ⅵ. 결론 및 제언 ····· 29

1. 결론 ····· 29
2. 제언 ····· 30

참고문헌 ····· 32
부록 ····· 37
영문 요약 ····· 5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차례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 15
<Table 2>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 of the participants ····· 16
<Table 3> Mean and SD of Peer communication, Sexual attitude of participants ····· 18
<Table 4> Correlation of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 of participants ····· 21

부록 차례

부록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허가서 ····· 37
부록 2. 대상자 및 보호자 설명문 및 동의서 ····· 38
부록 3. 대상자 모집 공고문 ····· 44
부록 4. 설문 표지 및 설문지 ····· 4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국 문 요 약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관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고, 성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성관련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5년 10월 7일에서 11월 24일 까지 서울 소재 일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총 134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기입 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4문항, 성적 특성 5문항과 또래간 성 의사소통은 Clay(1995)의 부모-자식간 성 의사소통 도구를 하상희 외(2006)이 번안한 것을 김연석(2007)이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성태도는 양순옥, 김신정(2004)의 도구를 노미영(2007)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 t-검정, ANOVA,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4.47세이며 2학년이 55.2%였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76.1%, 이성 형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54.5%, 가족 분위기는 보통으로 대답한 비율이 50.7%이다. 월경, 몽정을 시작한 연령은 12.04세 이며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51.5%, 음란물을 6개월 1-2이하로 시청하는 것은 36.6%, 주 성 상담 대상은 친구 68.7%이며, 부모님과 성상담을 한다고 한 학생 중 가끔 하는 편이 69%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총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98(±0.59)점으로 편안한 영역(31..±0.81), 가치적 영역(2.96±0.56), 정보적 영역(2.89±0.64)의 순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로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생의 성태도 총 평균 점수는 3.83(±0.36)점으로 성 문화 및 성 윤리(4.03±0.52), 인간관계 이해(3.86±0.45), 신체 및 심리발달(3.65±0.47)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다.

(3) 대상자가 음란물을 한달에 1-2회 이상 시청할 경우 본적 없거나 6개월동안 1-2회 이하로 시청한 경우 보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었으며($t=5.62$, $p=0.02$), 성 상담 대상이 친구인 대상자와 다른 상담 대상이 보호자인 대상자에서 유의미한 차이($t=5.90$, $p<0.05$)가 있었다. 즉, 음란물을 많이 시청할 경우와 성상담을 친구와 할 경우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성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t=5.74$, $p<0.05$)가 있었으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4)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하부 영역 중 편안한 영역과 성태도 중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r=.224$, $p=<0.01$)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편안하게 할수록 신체 및 심리발달에 대한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편안하게 수행할수록 신체 및 심리발달에 대한 성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체 및 심리발달에 대한 성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사로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중학생, 또래간 성 의사소통, 성태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제 2의 급등기로 나타나는 신체적 발달 및 성적 발달이다. 청소년기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성숙되고 통합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인이 되기 위한 인격 완성의 준비시기이며, 아직 갖춰지지 않은 자신의 성역할이나 성태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차남현 & 왕남현, 2006). 성태도는 이성에 대해 안정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래의 경향이 정해지는 심적 경향으로 신체적 구조에 관한 느낌, 다양한 성 활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양야기 2012).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는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성인기 이후의 성태도를 영향을 미치며(Hurlock, 1978),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이 시기에 올바른 성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성태도란 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성문화와 성윤리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적 성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노미영, 2007). 건강한 성태도를 함양시켰을 때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 건전하지 못할 때 좌절감과 성적 일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이은희, 2005). 청소년의 성태도가 무분별하게 허용적이며 성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경우 불안의 정도가 증가하였으며(오선, 2004),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배경의 & 강양희, 2007) 건강하지 않은 성태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성태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교육여부(김은주, 염영희, 이규은, 차복경, 조선화, 2005; 신경림, 박효정, 홍정민, 2010; 김승남 & 유은정, 2013), 성지식의 수준(오진아, 2008; 하주영, 2009; Vanessa st al, 2015), 성별(이상문, 1995; 이보은, 2011)과, 음란물 접촉 여부(백경신 & 정승교, 2006; 이종경, 200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김유정, 2010; 고명숙 & 석정원, 2011; 양야기, 2012; 오은선, 2015), 이성교제 경험(우명지, 2011) 부모와의 애착(김정숙, 2010; 김정규, 2010; 임수진, 2012; 김순규, 최혜정, 이윤애, 2015)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이 같은 다양한 요인 이외에도 청소년의 성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또래와의 관계가 있다(김윤정, 2015).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또래와 같이 지내며 이성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등 주변의 다른 관심거리에 흥미를 갖게 된다(Larson et al, 1996). 이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대인 관계 변화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갑작스러운 생리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 관계로 관심을 전환하게 된다(이은희, 2005). 이 시기에는 또래친구가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밀접함이 감소할 때 또래 관계의 밀접함이 증가하게 되는데(최정임, 2015), 청소년들은 성 의사소통을 동성 친구들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3).

따라서 친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가까운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때 긍적적인 성태도를 갖게 된다(김연석, 2007). 하지만,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질 때 올바른 성지식으로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1999)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성태도에 항상 긍정적인 관계만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성태도 형성에 중요한 선행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에 대한 연구는 김연석(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국외 논문의 결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태도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 실태를 파악하고, 또래간 성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성관련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기위한 기초 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중학생의 특성에 따른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3. 용어정의

1) 또래간 성 의사소통

성 의사소통은 의사를 교환하는 사람들 간에 성신념, 성태도, 성가치, 혹은 성행동을 동일하게 중요한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며(Clay, 1995), 또래간 성 의사소통은 성 의사소통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또래인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Clay(1995)의 부모-자식간 의사소통 도구를 하상희(2006)가 번안해서 수정한 것을 김연석(2007)이 또래 간 성 의사소통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총 1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이다.

2) 성태도

성태도는 이성에 대해 안정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래의 경향이 정해지는 심적 경향으로 신체적 구조에 관한 느낌, 다양한 성 활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양야기 2012). 본 연구에서는 양순옥, 김신정(2004)이 개발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하부영역 중 성태도를 측정한 도구를 노미영(2007)이 수정 보완한 총 22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Ⅱ. 문헌고찰

1. 또래간 성 의사소통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위계적 사회관계에서 독립성을 추구하고 친구와의 수평적 관계를 발전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이은희, 2005).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시행하는 가장 첫 번째 교육자의 역할을 갖지만, 점차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성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더 빈번하게 성적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DiIorio et al., 1999; Pistella & Bonati, 1998; Sprecher, Harris, & Meyers, 2008). 서울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학생들이 성관련 고민을 의논하는 상대를 '동성 친구' 32.2%, '부모'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내었으며 고등학생에서는 그 비율이 '동성 친구' 35.2%, '부모' 6.7%등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동성친구와 가장 빈번하게 성 관련 고민에 대한 의사소통을 시행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고민을 의논하는 비율은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남자 대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 미디어에서 가장 많은 성지식을 얻는다(Epstein & Ward, 2008). 또한 대학생들은 동성 친구들과 성 의사소통을 할 때 높은 수준의 편안함과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일 경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efkowits, Boone, & Shearer, 2004). 이러한 성적 의사소통은 대개 성과 이성교제에 관련된 사적인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의 긍정적이고 가벼운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Epstein et al, 2008). 권혜진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를 통한 채팅과 핸드폰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교류를 어렵게 하는 은어와 신조어를 다량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방법이 보다 다양화되었다고 보고 한다. 즉,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은 부모와 성 의사소통보다 더 다양하고, 노골적이며, 빈번하고, 편안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걸 보여준다(Bleakley, Hennessy, Fishbein, & Jordan, 2009; Hushes, Morrison, & Asada, 2005; Lefkowitz & Espinosa-Hernadez, 200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로서(이영자, 2000), 청소년들은 활발한 성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성 지식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정립된 생각을 그들의 성 태도로 옮기게 된다. 라틴계 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Guzman (2003)의 연구에서 그들은 부모를 포함해 친구, 이성친구, 친척 등 성 의사소통 관계망을 매우 넓게 가지고 있었으며, 이 관계망 내에서 편안한 성 의사소통을 시행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행동을 적게 보고하며, 성관계의 시작이 보다 늦으며, 첫 성관계를 더 늦추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을 나타났다. 하지만, 위의 연구와 같은 또래간 성적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시행한 연구는 현재 보고된 수가 매우 적으며,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Busse 외 (2010)의 연구에 의하면 또래간 성 의사소통은 개방적인 성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인 성태도는 성관계의 시작을 앞당기는 요인으로서 또래간 성 의사소통은 청소년이 이른 성관계를 하도록 압력을 주는 요인이라 보고하였다. Sarah, Monique, Kyla, Khia, Dana (2014)의 연구에서는 순결을 제외한 모든 주제에서 부모 자식간 성 의사소통보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간 성 의사소통은 부모 자식간 성 의사소통에 비해 많은 성경험을 하게하고 더 많은 성 파트너를 두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 자식간 성 의사소통이 더 적을수록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Whitaker & Miller, 2000). Laura et al (2014)는 초기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 부모님,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성 의사소통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성 친구, 부모님, 또래 친구들과 성 의사소통이 활발하였으며, 부모와 또래 친구들과의 성 의사소통이 증가할 경우 이성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부모와 또래 친구들과의 성 의사소통이 활발할 경우 실질적인 성적 행동이 이어지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성 의사소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발할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성태도와 성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연구들 에서는 이러한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청소년들은 비슷한 수준의 성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끼리 친구가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Pristein, Meade, and Cohen,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성 의사소통을 통해 더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게 되는 반면, 성행동에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친구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그룹내의 성 의사소통을 통해 보수적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어 보수적인 성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Lefkowitz 외, 2007) 구성원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Bo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60%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과의 성 의사소통 수준은 여자 청소년의 성 의사소통의 30%수준에 불과했다. 연구 결과 나이, 학력, 가족 구성, 부모 훈육,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성 의사소통과 이성 교제는 청소년 혼전 성경험과 강력히 관련되어 있으며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보수적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석(200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남녀간에 성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는 없었으며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수록 성지식이 낮았고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는 증가되며 부정적인 성태도는 감소하는 것을 보여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성태도에 긍정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선배로부터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장필화 & 조형, 1992) 학생들은 성 행동은 앞서는데 비해 성에 대한 주체성이나 책임의식은 뒤따르지 못하는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올바른 성 의사소통의 부재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에 대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김연석(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따라서 국내 청소년들의 친구끼리의 성에 관한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하고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성태도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를 말한다(국어대사전, 2015). 성태도는 성에 대한 감정, 생각, 견해, 지식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그 현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이춘재, 1996). 성태도는 성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 및 행동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이성옥, 2000).

성태도는 개인의 성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Boone et al, 2004; 최혜정 외, 2012) 으로 각자가 속해있는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특히 청소년기 성태도는 부모의 가치관, 성별, 친구들의 태도, 이성교제 여부, 나이, 신체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갖게 되며, 사춘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가 일생동안의 성태도를 좌우한다(오인숙, 2012). 성인이 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태도는 불완전하고 탐색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김장청, 2004). Hurlock(1995)은 사춘기의 성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지식을 얻는 시기와 범위,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 성태도는 그 당시의 인격적 요소나 성인기 전 성관념 및 성인기 후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긍정적이지 않은 성태도는 좌절감과 성적 일탈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 한 인간의 인격 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요소라고 할 수 있다(임창옥, 2006; 이보은,2011).

이영숙(2005)은 성태도를 세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성 관련 문화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성의식 요인, 성에 대한 관심의 성향에 따른 성관심 요인, 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경험에 대한 성윤리 요인이라 하였다. 이러한 세요인의 특성의 정도에 따라 한국 청소년들의 성태도를 적극동조형 집단, 소극형 집단, 보수지향형 집단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적극동조형 집단은 성의식과 성관심이 높은 반면 성윤리 요인은 보통인 집단을 말하며, 소극형 집단은 성의식과 성관심이 높지 않으며 성윤리가 약한 집단이며, 보수지향형 집단은 성의식과 성관심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낮으나 성윤리가 높은 집단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의 청소년들은 소극형에 속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적극 동조형에 속한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은 개방적인 현재의 상황에 따라가기 보다는 성에 대해 보다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학생은 보수지향형, 고교생은 적극동조형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성에 관심이 적고 소극적이며 폐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성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김은주 외, 2005; 신경림 외 2010; 김승남 외, 2013). 임영림(2014)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코칭강화모델에 근거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을 때 실험군에 비해 대조군이 긍정적인 성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체계적인 이론에 입각한 성교육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긍정적 성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성지식은 성태도의 주요 선행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성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를 보인다(Vanessa st al,; 2015, 오진아, 2008).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하주영(2009)의 연구에서는 실제 성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성지식 정도와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는 주관적 성지식 수준의 정도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여대생들은 주관적 성지식과 객관적 성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객관적인 성지식뿐만 아니라 성지식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이 실제 성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보은(2011)은 성태도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개방적이거나 허용적인 반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성 불평등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집단에 비해 여자집단에서 성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보수적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상문(1995)의 연구에서도 남자 청소년의 성적 허용성 정도가 여성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의 발달에는 부모, 친구, 형제자매 등의 여러 요인들이 관계한다(김혜원 & 이해경, 2000).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도 이성친구와의 교제여부는 청소년의 성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명지(201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성관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남녀학생 모두에게 성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 반면 고명숙 외(2011)의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성교제는 성태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 이성교제 경험은 다양한 조건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음란물 접촉이 증가할수록 성태도는 부정적 양상을 나타내는데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이 증가되고 있어 이러한 영향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백경신 외, 2006; 이종경, 2008; 김유정, 2010; 고명숙 외, 2011; 양야기, 201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은선(201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음란물 접촉시기가 빠를수록, 접촉 후 음란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길수록 성태도의 하부요인인 성 허용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성에 대한 책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숙고하기 이전인 어린 시기에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성 허용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성태도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건전한 성태도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 건전하지 못할 때 좌절감과 성적일탈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최경숙, 2002). 김현숙(2006)의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발달시키지 못하는 억압적 유형의 아이들은 모든 이성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일체의 성적 결정을 회피하기 쉽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인격형성과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태도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남녀 중학생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M 중학교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에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위한 효과크기(d=0.15), 유의수준(α=0.05), 검정력(1-β=0.80), 관련 변인 수 11개로 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 크기는 123명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의 온라인 연구에서의 탈락률이 30%인 것을 감안하여 총 151명의 동의를 받았고, 그 중 실제 설문에 참여한 144명 중 10명의 부적절한 답변을 제외한 총 134명의 자료조사를 시행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대상자의 대상자 특성, 또래간 성 의사소통, 성태도로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형제자매 구성, 집안 분위기로 4문항이고, 성적 특성은 월경/몽정을 시작한 나이, 이성 친구 교제 경험, 음란물 시청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횟수, 성 상담 대상,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여부로 5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또래간 성 의사소통

Clay(1995)의 부모-자식간 의사소통 도구를 하상희(2006)가 번안해서 수정한 것을 김연석(2007)이 또래 간 성 의사소통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상호 호혜적 영역", "정보적 영역", "가치적 영역" 3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 호혜적 영역"은 또래간 성 의사소통할 때 편안한 정도를 측정하는 영역이고, "정보적 영역"은 또래간 성 의소소통 시행 시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측정하는 영역이며, "가치적 영역"은 또래간 성 의소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영역이다. 문항은 총 18개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계산하였다. 점수는 최저 18점에서 9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폐쇄적인 성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석(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hach's alpha 값은 0.89로 나왔다.

3) 성태도

양순옥, 김신정(2004)이 개발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 하부 영역 중 성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노미영(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 문화 및 성 윤리" 세 가지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및 심리발달"은 신체 및 성 심리발달과 성 건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인간관계 이해"는 결혼과 사랑 자기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성문화 및 성윤리"는 사회적 환경과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거의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주어 계

산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성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노미영(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hach's alpha 값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hach's alpha 값은 0.73이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IRB 승인을 얻은 후 서울특별시 G구의 M 중학교의 학교장의 동의를 구하여 2015년 10월 7일에서 11월 24일까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중학생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학교장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 2-3학년 학급게시판에 모집문건을 공고 하고, 일부 반을 편의 추출하여 교수자의 승낙 하에 수업 외 시간에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설명문을 교내에 비치하여 원하는 대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연구의 설문은 온라인 설문 사이트인 서베이몽키(http://ko.surveymonkey.com)를 통해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와 보호자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대상자와 보호자의 동의서를 가져온 사람에 한하여 E-mail로 온라인 URL 접속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였다. E-mail을 통해서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링크에 접속해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접속은 연구대상자가 중복하여 설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문이 완료되면 해당 E-mail로 재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결측값이 있을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정하여 자료수집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중간에 언제라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설문 마지막 문항에 있는 URL 주소로 연계하여 보상을 위한 연락처를 별도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호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품으로 소정의 선물을 모바일 선물을 통해 제공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1.0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적 특성은 평균,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적 특성에 따른 또래간 성 의사소통, 성태도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상관성을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중학생은 총 134명이며 서울 지역의 G구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13세 최대 16세로 평균 14.47세 였으며 학년은 2학년이 74명(55.2%), 3학년이 60명(44.8%)이었다.<Table 1> 성별은 남학생 32명(23.9%), 여학생 102명(76.1%)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많았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동성형제만 있는 학생의 경우 50명(37.3%), 이성형제가 있는 학생은 73명(54.5%), 외동인 경우는 11명(8.2%)이었다. 가족분위기를 보수적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25명(18.7%)이며,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68명(50.7%)이었고, 개방적이라고 한 학생은 41명(30.6%)으로 가족 분위기를 개방적이거나 평균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 대상자들 중 월경 혹은 몽정을 시작한 연령은 12.04세 이며,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은 14명(10.4%)이었고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성교제를 한 적 있는 학생은 69명(51.5%)으로 이성교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인 51명(38.1%)에 비해 대다수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본 적 없는 학생이 47명(35.1%), 6개월에 1-2회 미만으로 시청하는 학생이 49명(36.6%), 한 달에 1-2회 이상 시청하는 학생은 38명(28.3%)이었다. 성에 대한 상담을 하는 대상이 92명(68.7%)이 친구라고 대다수의 학생이 대답하였으며 부모님에게 상담 28명(20.9%), 선생님에 상담은 14명(10.4%)이었다.

성 상담 대상을 부모님으로 대답한 학생(29명)중에서, 성 상담을 가끔 하는 학생은 20명(6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으로 대답한 학생은 6명(20.7%), 자주 하는 학생들은 3명(10.3%)으로 가장 적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 = 134)

Characters	Categories	N	%	M±SD
Age				14.47±.73
Grade	2nd Grade	74	55.2	
	3rd Grage	60	44.8	
Sex	Male	32	23.9	
	Female	102	76.1	
Siblings	Homosexual	50	37.3	
	Heterosexual	73	54.5	
	Only child	11	8.2	
Family mood	Conaservative	25	18.7	
	Average	68	50.7	
	Opened	41	30.6	
Initiation of mesturateion / Nocturnal emission		134		12.04±1.80
Dating	Having a relationship	14	10.4	
	Have been a relationship	69	51.5	
	Not Have been	51	38.1	
Frequency of Pornography	Not before	47	35.1	
	less than 1~2/6m	49	36.6	
	More than 1~2/m	38	28.3	
Major consultant about sex	Parents	29	20.9	
	Teachers	14	10.4	
	Friends	92	68.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대상자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 성태도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문항별 평균점수로 보았을 때 평균점수는 2.98점이었다. <Table 2>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세부 영역을 문항별 평균점수로 보았을 때, 편안한 영역(3.11점), 가치적 영역(2.96점), 정보적 영역(2.89점)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또래간 성 의사소통은 남학생(3.04점)이 여학생(2.96점)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하위영역에서도 동일하였다.

성태도 문항별 평균점수는 보았을 때, 평균 3.83점으로 성 문화 및 성 윤리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 이해 영역이 높았고,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의 순이었다. 순서는 성 문화 및 성 윤리(4.03점), 인간관계 이해(3.86점), 신체 및 심리발달(3.65점)이었다. 성별에 따른 점수를 분석했을 때 전체 성태도는 여학생(3.84점), 남학생(3.79점으로 여학생이 다소 긍정적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 신체 및 심리발달에서는 남학생(3.73점)이 여학생(3.6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 of the participants

(N = 134)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
	M±SD	M±SD
Male	3.04±.57	3.79±.41
Female	2.96±.59	3.84±.34
Total	2.98±.59	3.83±.3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또래간 성 의사소통, 성태도

일반적 특성 중에서 2학년 학생보다 3학년 학생이 성태도가 긍정적적인 것(t=5.74, p<0.05)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일반적 특성과 성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성적 특성에서 음란물 시청 횟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62, p<0.05). 한 달에 1-2회 이상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음란물을 지금까지 본 적 없거나 6개월에 1-2회 이하로 시청한 경우,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란물 시청 횟수는 성태도와 관계가 없었다. 성상담 대상이 친구인 경우, 성상담 대상이 부모님 혹은 선생님과 같은 보호자인 경우보다 더 개방적인 것(t=5.90, p<0.05)으로 나타났으며 성상담 대상과 성태도는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특성 중 월경, 몽정 시작 시기, 이성교제 경험, 부모님과 성 의사소통 빈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3> Mean and SD of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 of participants (Continued)

(N = 143)

Characters	Categories	N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	
			M±SD	F/t(p)	M±SD	F/t(p)
Sex	Male	32	3.04±.57	.563(.575)	3.79±9.41	-.691(.491)
	Female	102	2.97±.59		3.84±.34	
Grade	2nd Grade	74	2.94±.59	.807(.37)	3.77±.36	5.74(<.05)
	3rd Grade	60	3.03±.59		3.91±.33	
siblings	Homosexual	50	2.91±.66	.926(.399)	3.79±.34	1.01(.368)
	Heterosexual	73	3.01±.53		3.84±.37	
	Only child	11	3.16±.62		3.96±.39	
Family mood	Conservative	25	3.23±.58	2.75(.068)	3.87±.31	1.15(.320)
	Average	68	2.94±.59		3.78±.34	
	Opened	41	2.91±.56		3.83±.3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3> Mean and SD of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 of participants

(N = 134)

Characters	Categories	N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	
			M±SD	F/t(p)	M±SD	F/t(p)
Initiation of mensturation / nocturnal emission	Age of 10-12	61	3.04±.63	.57(.57)	3.86±.36	.34(.71)
	Age of 13~16	59	2.93±.57		3.80±.36	
	Nor before	14	2.95±.43		3.84±.34	
Dating	Having a relationship	14	3.00±.57	.94(.39)	3.82±.28	.84(.43)
	Have been	69	3.05±.57		3.80±.38	
	Not before	51	2.90±.61		3.88±.35	
Frequency of Pornography	Not before & Less than 1-2/6m	96	2.91±.57	5.62(<.05)	3.84±.35	.14(.71)
	More than 1-2/m	38	3.17±.59		3.81±.39	
Major consultant about sex	Protector	42	2.81±.67	5.90(<.05)	3.84±.35	.05(.825)
	Friends	92	3.07±.53		3.83±.3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 대상자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관계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상관관계는 <Table 4>에 나와있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은 성태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하부영역인 편안한 영역과 성태도의 하부영역인 신체 및 심리발달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r=.244$, $p<.01$)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하는데 편안한 느낌을 가질수록, 청소년의 성적 신체 및 심리발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4> Correlation of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 of participants

(N = 134)

	Sexual attitude	Physical and Psycological development	Understanding of Human relationship	Sexual clture and Sexual Ethics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003 (p=.969)	.130 (p=.134)	-.140 (p=.106)	.014 (p=.876)
Comfort dimension	.106 (p=.222)	.224 (p<.01)	-.092 (p=.292)	.106 (p=.221)
Value dimension	-.032 (p=.712)	.084 (p=.337)	-.122 (p=.160)	-.042 (p=.632)
Information dimension	-.097 (p=.262)	-.001 (p=.994)	-.161 (p=.063)	-.061 (p=.483)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Ⅴ.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태도 발달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학생의 올바른 성태도 함양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도출해 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별 평균 점수는 2.98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측정한 김연석(2007)의 연구에서 평균 점수(3.38점)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성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지 않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Laura et al., 2014).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하부영역에 대해 성별로 비교해 봤을 때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편안한 영역과 가치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정보적 영역에서는 여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 남학생이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시행할 때 여학생 보다는 성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기보다 성 의사소통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성 의사소통을 통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학생이 성적 의사소통을 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성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받는다는 Gilmore et al.(1996)의 연구 결과처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성적 의사소통을 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중재를 시행할 때 여학생보다 중재의 효과를 빨리 나타내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중재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기에 보다 간호사의 세심하고 민감한 대처 노력과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음란물 시청 횟수와 성상담 대상에 따라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음란물을 본 적 없거나 6개월에 1-2회 이하로 본 경우 한 달에 1-2회 이상 음란물을 본 학생보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와 음란물 시청 횟수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증가할수록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이를 통한 중학생의 음란물 접촉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음란물을 통해 얻게 된 불건전한 성지식을 기반으로 한 부정적 성태도 형성이 우려되므로 성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문가의 투입을 통해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올바르게 지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점차 활성화되는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통해 성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추후 음란물의 접촉과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반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 상담 대상이 친구인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청소년의 보호자인 경우보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 Sarah et al(201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성 상담을 친구들과 시행 하는 경우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더 개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부모님과 성 의사소통을 하는 대상자의 경우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으나 부모님과 성 상담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29명에 불과해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부모-자식 성 의사소통의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적절한 성행동을 취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Moore S, Rosenthal D, 1993), 부모-자식간 성 의사소통 및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추후 연구를 진행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부모는 청소년의 주 보호자로서 청소년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차 그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으로서(Guzman, 2003), 부모-자식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중재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축적된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가 부족해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다른 선행요인이 있는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와 조건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선행요인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적합한 중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성태도에 대한 문항별 평균점수는 3.83점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수행한 노미영(2007)의 연구에서 나온 3.71점보다 높은 수준의 성태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태도의 수준이 이전에 비해 올라간 것으로 중학생의 성태도가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부 영역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학생은 성문화 및 성윤리,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의 순서로 성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여학생은 성문화 및 성윤리, 인간관계 이해, 신체 및 심리발달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 및 심리발달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성태도를 보였으나 성문화 및 성윤리, 인간관계 이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변의 인간관계와 문화, 윤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태도를 정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의 차이를 토대로 성별을 고려한 추후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성별의 차이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성별에 따라 성태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성태도를 보였던 오진아(200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성태도의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규교육과정에서 수행하는 지속적인 성교육의 축적을 통해 남녀 모두 성태도 수준이 상향 일반화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성태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초등학교에서 조기 성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 남녀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성태도를 형성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성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학년 학생보다 3학년 학생의 성태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던 노미영(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더 많은 성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신체적 성숙으로 인해 그에 상응하게 보다 긍정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인 성태도를 정립해 나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부정적인 성태도를 가지는 Busse 외(2010)와 Sarah 외(2014)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위의 두 연구는 국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국내에 해외 문화의 유입으로 환경은 서구화 되었지만 국내 중학생들의 경우 성에 대해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므로(이영숙, 2005), 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국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국내 청소년들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김연석, 2007)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성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상황인 중학생과 비교적 공고하게 형성된 후기 청소년에서 초기 성인 단계인 대학생의 발달단계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되지 않았던 연령대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령대에 따른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의 변화 양상에 대한 경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은 편안한 영역, 가치적 영역, 정보적 영역의 하부영역으로, 성태도는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 문화 및 성윤리의 하부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편안한 영역과 성태도의 신체 및 심리발달영역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편안하게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시행할수록 성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편안하게 할수록 긍정적인 성태도가 증가하고 부정적인 성태도가 감소하는 김연석(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편안하게 성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성적 인간관계, 성 문화 및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편안하게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개인의 성 관련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함양과 관련이 있으나 그것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확장되어 타인과의 성적 관계와 사회적 문화적 성 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치관에까지는 연관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가 개인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노력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며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관계에서 개인의 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중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개인의 성태도가 형성되었지만 이성 관계와 사회적 영역의 성태도의 발달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에 두 변수 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안한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발달단계 별로 성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청소년기에 개인에 국한 되었던 것이 성인기와 그 이후의 인간관계와 성 윤리적 부분까지 확장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의 긍정적인 성태도와 상관이 있기에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는 어떠한 선행요인이 수반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경우 긍정적인 성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연구에서 도출된 선행요인을 근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는 간호교육 측면에서 성교육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을 교육하는 보건교사 및 일반 교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본 자료가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대상으로 간호학적 접근을 시도할 때 또래간 성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여 그 수준에 따라 개개인에게 적합한 간호 중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를 통해 중학교 청소년들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 두 변수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간호 분야에서 또래간 의사소통에 비해 연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전까지 청소년들의 단편적 실태 조사에 머물렀던 해당분야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성태도와의 상관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간에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하부 영역인 의사소통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과 개인의 신체 및 심리발달에 대한 성태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추후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자가 임의로 편의 추출한 서울시 내 중학교 한 곳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표본 집단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외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그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문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설문에 답할 때 문항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기입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조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성적 주제를 담고 있으며 그 대상자가 사춘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했기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으나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고, 성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성관련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5년 10월 7일에서 11월 24일 까지 서울 소재 일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총 151명의 학생과 학부모의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그중 14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불충분한 답변을 한 9명의 응답을 제외한 134명을 대상으로, 자가기입 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4문항, 성적 특성 5문항과 또래간 성 의사소통은 Clay(1995)의 부모-자식간 성 의사소통 도구를 하상희 외(2006)이 번안한 것을 김연석(2007)이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성태도는 양순옥, 김신정(2004)의 도구를 노미영(2007)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 t-검정, ANOVA,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4.47세이며 2학년이 55.2%였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76.1%, 이성 형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54.5%, 가족 분위기는 보통으로 대답한 비율이 50.7%이다. 월경, 몽정을 시작한 연령은 12.04세 이며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51.5%, 음란물을 6개월 1-2이하로 시청하는 것은 36.6%, 주 성 상담 대상은 친구 68.7%이며, 부모님과 성상담을 한다고 한 학생 중 가끔 하는 편이 69%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총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98(±0.59)점으로 편안한 영역(31..±0.81), 가치적 영역(2.96±0.56), 정보적 영역(2.89±0.64)의 순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로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생의 성태도 총 평균 점수는 3.83(±0.36)점으로 성 문화 및 성 윤리(4.03±0.52), 인간관계 이해(3.86±0.45), 신체 및 심리발달(3.65±0.47)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다.

(3) 대상자가 음란물을 한달에 1-2회 이상 시청할 경우 본적 없거나 6개월동안 1-2회 이하로 시청한 경우 보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었으며($t=5.62$, $p<0.05$), 성 상담 대상이 친구인 대상자와 다른 상담 대상이 보호자인 대상자에서 유의미한 차이($t=5.90$, $p<0.05$)가 있었다. 즉, 음란물을 많이 시청할 경우와 성상담을 친구와 할 경우 또래간 성 의사소통이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성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t=5.74$, $p<0.05$)가 있었으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4)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하부 영역 중 편안한 영역과 성태도 중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r=.224$, $p<0.01$)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간 성 의사소통을 편안하게 할수록 신체 및 심리발달에 대한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실무/교육 측면: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측면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간호사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개개인의 의사소통 정도와 양상에 따른 맞춤형 개별 성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 정규 성교육에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측면을 포함시켜 진행하기를 제언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간호연구 측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중학교에서 더 많은 수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또래간 성 의사소통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선행요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또래간 성 의사소통과 관련된 촉진 요인과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학생의 또래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를 제언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참고문헌

고명숙, 석정원 (2011). 성관련 특성에 따른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의 차이. *아동간호학회지*, 17(3), 153-160.

국어대사전 (2015). *국어국문학회1* 서울: 민중서관.

김순규, 최혜정, 이윤애 (2015).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41-59.

김승남, 유은정 (2013). 미술활동을 통한 성교육이 장애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학급 중등부 학생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5(4), 331-351.

김정규 (2010).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통제요인들의 변이에 관한 연구: 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2), 97-128.

김정숙 (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성 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석 (2007).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중요성: 성 의사소통, 성지식, 성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만, 유수정, 송미령 (2013). 대학생의 음란물 노출력과 성태도 및 성경험간의 상관성 분석. *기본간호학회지*, 20(1), 18-26.

김은주, 염영희, 이규은, 차복경, 조선화 (2005). 중학생의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성교육 후 성태도 변화. *기본간호학회지*, 12(3), 362-373.

김윤정, 권수진, 권혜진 (2015). 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4), 291-302.

김장청 (2004). *청소년기의 성역할, 성정체감과 성태도 유형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진영 (2005).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 김경신 (2008).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한국가족복지학, 13(1), 123-138.

김현숙 (2006).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인천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혜원, 이해경 (2000). *성교육지도지침 및 교재개발: 고등학교, 여성교육정책과제 연구보고서*. 교육부.

박지현 (2004). *대학생 커플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성과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대화에 따라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경의, 강양희 (2007). 부산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1), 36-47.

백경신, 정승교 (2006). 일 지역 여고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 성지식, 성태도 및 관련요인 자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3), 376-386.

신경림, 박효정, 홍정민 (2010).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22(4), 448-456.

양야기 (2012).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3), 159-169.

오선 (2004).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청소년의 성태도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은선 (2015).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초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3), 93-113.

오인숙 (2012).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진아 (2008). 후기 학령기 아동의 성성숙도, 성지식과 성태도. *아동간호학회지*, 14(3), 305-314.

우명지 (2011). *고등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와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근후 (1999). 청소년과 성.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서울: 집문당. 64, 175-179.

이보은 (2012). *여자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영숙 (2005).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폭력 사건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4(5), 709-720

이영자 (2000). 청소년, 소녀의 성문화의 특성과 학교 성교육의 과제. *가톨릭대학교 성 평등연구소. 성* 평등연구 4권.

이은희 (2005).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경 (2008).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경험, 안전한 성행위 의도 비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2), 290-299.

이춘재 (1996). *청소년 심리학.* 서울: 서원. 9(1), 154-166.

임수진 (2012).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성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7(3), 347-361.

임영림, 박경민 (2014). 초등학생의 성교육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4(1), 31-40.

임창옥 (2006).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필화, 조형 (1992). 한국의 성 문화. *여성학논집,* 8, 127-170.

정유미 (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차남현, 왕명자 (2006). 여자 중, 고등학생들의 이성과의 신체접촉 양상에 대한 인식과 경험 실태, 성지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3), 249-256

최정임 (2015).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성콘텐츠 노출과 성태도, 부모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혜정, 강진아, 김연희 (2012).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3(2), 29-44.

하주영, 김건희 (2009). 일 지역 여대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여성건강,* 10(1), 17-32.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9).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음란성 간행물과 청소년 보호.

Anna L. A., Helen L., Gerns S., Sarah W. P. (2015). Exploring abortion attitudes of US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sing social media. *Contraception*. 91, 226-233.

Boone, T. L., & Lefkowitz, E. S. (2004). Safer sex and the health belief model: Considering the contributions of peer norms and socialization factors.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16, 51-68.

Bo W., et al. (2007). Sexual attitudes, pattern of communication, sexual behavior among unmarried out-of-school youth in China. *BMC Public Health,* 7, 189.

Brcar, P., & Zvezdna Dernovsea, M. (2009). Validation of questionnaire estimating predictors of behavior intention to engage in first sexual intercourse among eighth-grade pupils. *Croatian Medical Journal,* 50,483-491.

DiIorio, C., Kelley, M., Hockenberry-Eaton, M. (1999). Communication about sexual issues: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4, 181-189.

Doreen A. Rosental & S. Shirley Feldman (1999). The importance of importance: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The Journal of Adolescence,* 22, 835-851.

Epstein, M., & Ward, L. M. (2008). "Always use protection": Communcation boys receive about sex from parents, peers, and medi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113-126.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Norton.

Larson, R. W., Moneta, G., Richard, M. H., Wilson, S. (2002). Continuity, stability, and change in caily emotional experience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3(4), 1151~1165

Lefkowits, E. S., Boone, T. L., Shearer, C. L. (2004). Sex-related communication with best friends about sex-related topics during emerging adulthoo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339-351.

Laura W., Sophia C. B., Sarah S. H., Carol E. G., Mitchell J. P. (2014). Sexual communication between early adolesents and their dating partners, parents, and best friends. *Journal of Sex Research,* 51(7), 731-741

Hurlock E. B. (1978). *Child Growth and Development, 5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Hurlock E. B. (1995). *Adolescence Development,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J.-H. Lou. & S.-H. Chen. (2009). Relationship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afe sex behaviour among adolesc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 1595-1603

Shapiro, R., Siegel, A. W., Scovil, L. C & Hays, J (1998). Risk-taking patterns of female adolescents: what they do and why. *Journal of Adolescence,* 21(2), 143-159.

Sprecher, S., Harris, G., Meyers, A. (2008). perception of sources of sex education and targets of sex communcation: Sociodemographic and cohort effects. *Journal of Sex Research,* 40, 358-367.

Whitaker, D. J., & Miller, K, S. (2000). Parent adolescent discussions about sex and condoms: Impact of peer influences of sexual risk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51-273.

부록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허가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결과 통보서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 nursingirb@yuhs.ac Fax : 02-392-5440

심의번호	간대 IRB 2015-0028-1		발송일자	2015.10.8
심의종류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종료 및 결과보고 □기타심의			
연구과제명	중학생의 성태도와 성 의사소통의 관계 분석			
연구자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생	김수정
연구종류 (중복표시가능)	중재 연구	□의약품/의료기기 이용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화장품/시술법 등 사용 □음식/건강기능식품 등 섭취 □소음, 물리적 자극 등 환경 조작 □기타(모바일 기기 이용) □비침습적 □침습적		
	상호작용 연구	■설문지 작성 □인터뷰/면담 □행동관찰 □기타( )		
연구계획기간	IRB 승인 일 이후~ 2016년 7월 30일			
심의일자	2015년 10월 7일			
심의결과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중지 또는 보류			
연구승인유효기간	2015년 10월 8일 ~ 2016년 7월 30일			
심의의견	연구계획서의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이 충분하여 승인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과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지 않은 계획서에 대한 신규심의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이내의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이미 승인된 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후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심의를 신청하여 한다. 계획서의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서 승인되기 전까지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 및 결과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

부록 2. 대상자 및 보호자 설명문 및 동의서

version 2015. 4. 3.

연구대상자 설명문

1. 연구 제목

중학생의 성태도과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관계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하고,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성관련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연구 대상자 수 및 연구 기간

· 이 연구는 총 16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 이후부터 2016년 7월 30일 까지 이며, 설문조사는 IRB 승인 일 이후 2015년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시행하게 됩니다. 귀하 및 귀하의 보호자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약 10-15분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심으로써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3학년인 청소년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인 자
- 대상자의 보호자가 연구에 참여하는데 동의한 자
- 질문지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4. 연구 방법

· 귀하 및 귀하의 보호자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서면으로 연구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귀하와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시게 되며 동의서 작성 후 이를 소지할 수 있도록 사본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후에 귀하는 E-mail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 할 수 있는 링크를 받게 되며 이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5. 연구 기대효과

·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긍정정인 성태도의 향상을 위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청소년의 성태도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정신적 성숙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성행동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문적 밑거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6. 연구 위험성

· 연구가 시행되는 동안 컴퓨터 혹은 모바일 휴대폰 앞에서 10-15분 동안 설문을 해야 하므로 피로해 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로하실 경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설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가 시행되는 동안 성과 관련된 질문이 다소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질문 내용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며 이러한 점이 연구에 참여 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에 참여하시고 데스크탑 컴퓨터 혹은 모바일 휴대폰에서 설문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7. 연구대상자 보호

· 귀하께서 중학생의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 연구 대상자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보상을 위한 목적인 휴대폰 정보 기록 및 E-mail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사용 후 바로 폐기됩니다. 연구자의 요구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연구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김수정(010-91 -)입니다.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 점검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 귀하께서는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문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질문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공개되지 않습니다.

9.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 및 보상

· 연구 참여에 따른 시간 소요와 응답의 불편함을 감수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0. 연구책임자 연락처

·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연구자 성명 : 김수정
- 연구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동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 218동 1502호
- 연구자 전화번호 : 010-91 - (24시간 연락처)
- 연구자 e-mail : cong @naver.com

1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연구입니다.

-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2-2227-7909 / nursingirb@yuhs.ac

감사합니다.

version 2015. 4. 3.

연구대상자 보호자 설명문

1. 연구 제목

중학생의 성태도과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관계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하고,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성관련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연구 대상자 수 및 연구 기간

· 이 연구는 총 16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 이후부터 2016년 7월 30일 까지 이며, 설문조사는 IRB 승인 일 이후 2015년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시행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시는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연구대상자께서는 약 10-15 분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심으로써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에 재학 중인 2-3학년 청소년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인 자
- 대상자의 보호자가 연구에 참여하는데 동의한 자
- 질문지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4. 연구 방법

· 귀하 및 대상자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서면으로 연구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귀하와 연구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시게 되며 동의서 작성 후 이를 복사하여 소지할 수 있도록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후에 연구대상자는 E-maill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 할 수 있는 링크를 받게 되며 이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대상자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5. 연구 기대효과

·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긍정정인 성태도의 향상을 위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청소년의 성태도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정신적 성숙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성행동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문적 밑거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6. 연구 위험성

· 연구가 시행되는 동안 컴퓨터 혹은 모바일 휴대폰 앞에서 10-15분 동안 설문을 해야 하므로 연구대상자가 피로해 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로하실 경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설문을 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연구가 시행되는 동안 성과 관련된 질문이 귀하 및 연구대상자 분께 다소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질문 내용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며 연구에 참여 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다면 연구대상자 및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에 참여하시고 데스크탑 컴퓨터 혹은 모바일 휴대폰에서 설문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16. 07. 3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7. 연구대상자 보호

· 귀하께서 중학생의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에 대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 및 연구대상자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 귀하 및 연구대상자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보상을 위한 목적인 휴대폰 정보 기록 및 E-mail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사용 후 바로 폐기됩니다. 연구자의 요구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연구대상자 및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김수정(010-9172-0903)입니다.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 점검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 귀하 및 연구대상자께서는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문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 및 연구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질문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공개되지 않습니다.

9.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 및 보상

· 연구 참여에 따른 시간 소요와 응답의 불편함을 감수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연구대상자께 소정의 답례품(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0. 연구책임자 연락처

·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연구자 성명 : 김수정
- 연구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동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 218동 1502호
- 연구자 전화번호 : 010-91 - (24시간 연락처)
- 연구자 e-mail : cong @naver.com

1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연구입니다.

-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2-2227-7909 / nursingirb@yuhs.ac

감사합니다.

version 2015. 4. 3.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제목〕 **중학생의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관계**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기밀성 및 익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과 관련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이 정보가 향후 기타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개인정보 중 휴대폰 및 E-mail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본인은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연구 대상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서명)
	휴대폰	
	E-mail	

연구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김 수 정 (서명)
	연락처	010-91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16. 07. 3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version 2015. 4. 3.

연구대상자 보호자 동의서

〔연구제목〕 **중학생의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관계**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상기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기밀성 및 익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상기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상기 연구과 관련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상기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이 정보가 향후 기타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상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개인정보 중 휴대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본인 및 연구대상자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연구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김 수 정 (서명)
	연락처	010-91 -

법정 대리인	날 짜	년 월 일
	성 명	(서명)
	관 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16. 07. 3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부록 3. 대상자 모집 공고문

version 2015. 4. 3.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

연구 제목 : 중학생의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관계

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위 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으로 연구의 목적은 성태도와 성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하고,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중학생의 성관련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연구 대상자 수 및 기간

· 이 연구는 총 160명이 참여하며,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로부터 16년 7월 30일까지이며 설문조사는 IRB 승인일로부터 11월 중순까지로 본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3학년인 청소년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인 자
- 대상자의 보호자가 연구에 참여하는데 동의한 자
- 질문지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3. 연구 방법

·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완료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며 시간은 10-15분정도 소요됩니다.

4. 연구 참여시 보상

· 답례품(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5. 연구책임자 연락처

·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연구자 성명 : 김수정
- 연구자 전화번호 : 010-91 - (24시간 연락처)
- 연구자 e-mail : cong @naver.com

6.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연구입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2-2227-7909 / nursingirb@yuhs.ac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16. 07. 3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부록 4. 설문 표지 및 설문지

중학생의 성태도와 성 의사소통의 관계 분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김수정입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석사 학위 논문이며 중학생의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연구제목: 중학생의 성태도와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관계). 본 설문은 상기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성태도 실태를 파악하고, 또래 간 성 의사소통의 관계를 분석하여 성관련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기위한 기초 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중학생의 성태도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정신적 성숙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은 중학생의 성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적 학문 근거를 제공하여 간호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설문에는 10-15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작성된 온라인 설문은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이며 작성하신 답변에 대한 기밀성과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설문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참여에 이미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연구의 진행과정 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에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설문을 완료하시면 수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5000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될 것입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참여 중 장시간 설문으로 피로해 질 경우 잠시 쉬었다가 설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문의 성과 관련된 내용이 민감하게 느껴질 경우 언제든지 연구 철회가 가능하며 민감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의 독립된 공간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보다는 모바일 핸드폰을 이용해 설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 연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김수정 드림.

cong @naver.com

010-91 -

이전 다음

중학생의 성태도와 성 의사소통의 관계 분석

일반적 특성

다음은 자료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식 문항은 해당 내용을 자세히 기입해 주시고, 객관식 문항은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만) _____

학년 _____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남

◯ 여

3. 나의 형제자매 관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남자 형제만

◯ 여자 자매만

◯ 남/여 형제자매 다 있다.

◯ 외동이다

4. 본인이 느끼는 집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매우 보수적

◯ 다소 보수적

◯ 보통

◯ 다소 개방적

◯ 매우 개방적

성 관련 특성

다음은 개인의 성 관련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객관식 문항은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에 자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첫 월경 혹은 몽정을 시작한 나이는 몇 살입니까?

- ◯ 만 9세
- ◯ 만 10세
- ◯ 만 11세
- ◯ 만 12세
- ◯ 만 13세
- ◯ 만 14세
- ◯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6. 이성 친구를 사귄 적이 있습니까?

- ◯ 사귀고 있다.
- ◯ 사귄 경험이 있다.
- ◯ 사귄 경험이 없다.

7. 음란물을 시청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 본 적 없다
- ◯ 거의 보지 않는다
- ◯ 6개월 1~2회
- ◯ 한 달에 1~2회
- ◯ 1주일에 1~2회
- ◯ 거의 매일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8. 성과 관련된 고민은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 ◯ 부모님
- ◯ 선생님
- ◯ 상담 전문가
- ◯ 친구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이전 다음

- 8번에서 부모님이라고 답한 경우에만 9번 질문에 응답함.

9. 8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모님이라고 답변한 분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주 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는 편이십니까?

- ○ 가끔 하는 편이다
- ○ 보통이다
- ○ 자주 하는 편이다

이전 다음

10. 다음은 여러분의 성을 대하는 개인적인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V표를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부끄럽다.	○	○	○	○	○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바람직하지 않다.	○	○	○	○	○
자위행위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	○	○	○	○
생명 탄생의 과정은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	○	○	○	○
임신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	○	○	○	○
내가 여자(남자)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	○	○	○	○
우정과 사랑은 나만의 노력으로 키워가는 것이다.	○	○	○	○	○
사춘기가 되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	○	○	○
결혼은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	○	○	○	○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므로 굳이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다.	○	○	○	○	○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은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	○	○	○

11.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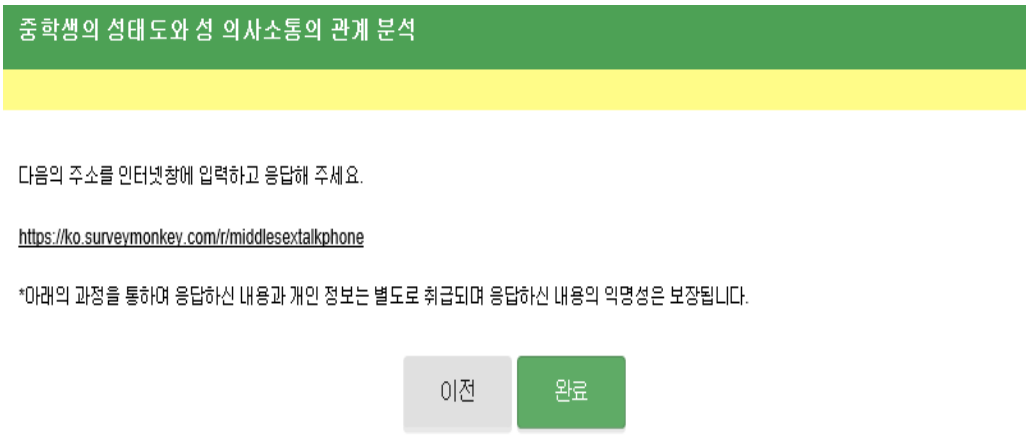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가 없다고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	○	○	○	○
이성교제는 사적인 일이므로 은밀히 하는 것이 좋다.	○	○	○	○	○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자신이 좋으면 상대방에게 성행동을 해도 괜찮다.	○	○	○	○	○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다.	○	○	○	○	○
자기 주장적 의사 표현은 바람직한 의사표현이다.	○	○	○	○	○
부부 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	○	○	○	○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	○	○	○	○
완전한 성에는 책임이 따른다.	○	○	○	○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	○	○	○	○
성역할 고정 관념을 갖는 것은 성 차별이다.	○	○	○	○	○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	○	○	○	○

12. 다음은 여러분이 친구와 성 의사소통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맞는 부분에 V표 하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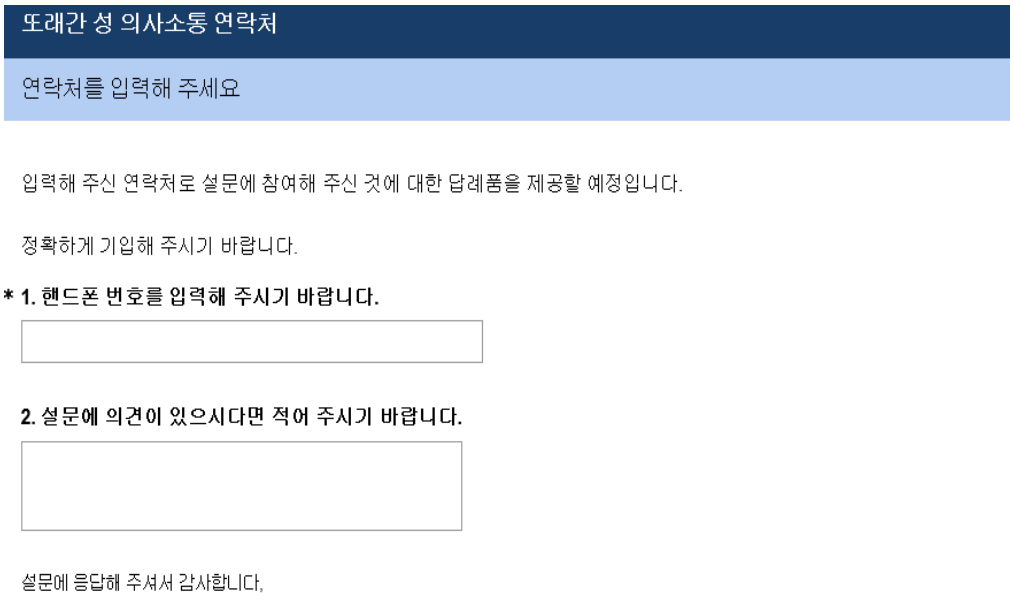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성은 나와 나의 친구가 이야기하기에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이여야 한다.	○	○	○	○	○
나는 성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다.	○	○	○	○	○
나의 친구는 내가 성에 관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	○	○	○	○
성에 관한 것을 친구에게 꼭 말할 필요는 없다.	○	○	○	○	○
나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	○	○	○	○	○
나는 친구가 성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	○	○	○	○	○
성에 관한 것을 배우는 장소는 주로 친구와 함께 있는 장소여야 한다.	○	○	○	○	○
나는 친구와 성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한다.	○	○	○	○	○
친구는 나에게 성에 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	○	○	○	○	○

13.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성은 너무 사적인 주제이므로 친구와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다.	○	○	○	○	○
친구는 나와 성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한다.	○	○	○	○	○
내가 성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이다.	○	○	○	○	○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친구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	○	○	○	○
성은 친구와 이야기하기에 너무 곤란한 주제이다.	○	○	○	○	○
만일 친구와 대화를 한다면 성에 관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것 같다.	○	○	○	○	○
성은 친구와 이야기하기에 가장 덜 중요한 주제이다.	○	○	○	○	○
나는 성에 관해 언제든 친구에게 물어 볼 수 있다.	○	○	○	○	○
성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보통 친구에게 물어본다.	○	○	○	○	○



<새로운 설문 창> 답례품 제공을 위한 별도 링크로의 연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and Sexual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Su J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a sex-related nursing intervention by analyzing the level of peer sexual communicat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and sexual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from October 7th to November 24th 2015.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 total of 134 middle school students. As research tools, 4 question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and 5 questions about sexual characteristics were used. For measuring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the parent-child sexual communication scale of Clay(1995), which was adapted by Ha, Sang-heui et al.(2006) and revised by Kim, Yeon-seok(2007), was used and for measuring sexual attitudes, the scale of Yang, Soon-ok and Kim, Sin-jeong(2004) that was revised by No, Mi-young(2007), was use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For processing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the students was 14.47 years old, 55.2% of them were in the second grade, 76.1% of them were female students, 54.5% of them had siblings and 50.7% of them responded that their family climate was normal. The students started menstruation or nocturnal emissions at the age of 12.04, 51.5% of them had experience in teen-dating, 36.6% of them replied that they watched pornography once or twice for six months, 68.7% of them said that they had sexual counseling with friends and 69% of them said that they had sexual counseling with parents, from time to time.

(2) The total average score of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in middle school students was 2.98(±0.59) out of 5 points. Among the sub-domains of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comfortable domain(31..±0.81) got the highest score and it was followed by value domain(2.96±0.56) and informational domain(2.89±0.64). The total average score of sexual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was 3.83(±0.36) point. Among the sub-domains of sexual attitudes, sexual culture and sexual ethics(4.03±0.52) got the highest score and it was followed by understanding of human relationships(3.86±0.45) and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3.65±0.47).

(3) There was a difference in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between the students, who watched pornography once or twice a month and those that didn't watch, or watched it once or twice for six months($t=5.62$, $p<0.05$),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udents, who had sexual counseling with friends and those that had sexual counseling with parents($t=5.90$, $p<0.05$). This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means there was a more open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when the students watched pornography a lot and had sexual counseling with friends. The students in the third grad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s($t=5.74$, $p<0.05$), compared to those in the second grade and this implies that sexual attitudes became positive in the upper grade.

(4)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and sexual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Among the sub-domains of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comfortable domai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sexual attitudes($r=.224$, $p<0.01$). This means sexual attitudes towards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were positive when there was a comfortable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These findings show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and sexual attitudes in Korea middle school students and sexual attitudes towards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are positive when there is a comfortable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exual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sexual attitudes towards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and to promote a comfortable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Moreover, it is required to provide a sexual education program as a nurse and to change the recognition, which is a barrier to a comfortable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in adolescents.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 Peer communication about sex, Sexual Attitude